

# 공동주택 품질 분쟁 사전 예방

## 군산시, 도내 유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견실시공 기여

군산시가 도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이 하자예방 및 견실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신규 공동주택의 견실시공 유도와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검수하는 제도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어린이 등 분야별로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20명으로 구성되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정을 50% 입주예정자 대표 초청 현장설명회, 골조공사완료, 마감공사 완료 시기에 현장별로 3회에 걸쳐 운영된다. 최근에는 공정을 50% 시기에 입주예정자 대표를 건설현장에 초청하여 품질검수단 운영회의 및 현장 검수에 참관토록 하는 등 입주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2018년 1월 24일 부

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공정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디오션시티, 이편한세상 건설현장 등 6개단지 4,900세대에 대하여 입주예정자 대표 초청 현장설명회, 골조완료, 마감완료시 공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검수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일 군산시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동주택 하자 제로를 목표로

/군산=김판곤기자

# 내실 있는 안전점검 추진으로 시민안전 도모

##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대책회의 실시

군산시는 5일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부서장 주재로 국·소장, 안전점검 부서장, 실무계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으로 거둬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추진으로 최근 발생한 제천 및 밀양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회의를 주재한 한준수 부시장은 "점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 등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안전진단과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이번 대진단기간인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해방기시설, 안전



취약분야, 최근 사고 발생분야 등 위험시설 450개소를 포함한 총 1,34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과 웹(www.safetyreport.gokr)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훈)는 지난 2일 익산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의원 5명(김정수, 김수연, 박철원, 윤영숙, 임원택 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익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민토크를 개최했다.

# 익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민토크 개최

익산시의회는 지난 2일 익산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의원 5명이 공동주관으로 익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민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토크는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의 진행으로 소병훈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5명 의원을 대표해 김정수 부의장의 인사가 있었다.

김정수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익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을 위해 선진지 견학 관계기관 간담회, 시민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2018년 익산시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토크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해주었다.

이어서 김수연 의원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발제했고, 최용길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이 익산시 범죄율, 사고율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의 자유토크가 진행됐다.

최용길 계장은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익산시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적극 투자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시민들도 지자체에 안전예산 반영을 적극 요구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호 원광여중 교장은 "배산노인복지관 앞에는 원광여중을 비롯하여 3개 학교 2천여명의 여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으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노인복지관 앞 4차선 도로 과속문제, 학교 뒤편 비버리펜 문제 등 개선을 위해 이번 기회에 효과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현지 부승조 녹색어머니회 부회장은 "학교 인근에 구석진 곳이나 어두운 곳, 쓰레기장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5명 의원은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2지역 학교 인근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에도 익산 전지역으로 점차 확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전북축구협회,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 기탁

전북도축구협회(전북축구협회장 김대은) 임원들은 5일 군산시청에서 이웃사랑의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된 성금 300만원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축구협회 김대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금석배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산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행복한 사회 분위기와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설명절 재정자금 235억원 집행

익산시는 민속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정자금 235억원을 시중에 내보냈다.

사회복지분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과 건설공사 공사비를 집중적으로 풀어 시민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파악한 설 명절 자금 수요액을 항목별로 보면 각종 민간보조 지원금 118억, 각종 공사시설비 73억원, 각종 인건비 40억원, 경상비 6억원 등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유기동물보호 발 벗고 나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민의 미지 개선과 동물보호 선진화를 위해 익산시가 발 벗고 나선다.

익산시는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TF팀을 선정하여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부지 물색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유기동물보호 선진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직영운영 전 대체할 유기동물보호소를 올해 초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입소한 유기동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회 이상 현장점검

을 실시해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사료 급여, 건강상태 등의 일반상황과 입소한 개체와 폐사체간 동양성 확인 등 유기동물보호소 전반에 걸쳐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해 부서장·과장이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지도감독하고 보호소 운영 전반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해 투명한 동물복지 지향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31일 언론매체, 인터넷 카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모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시행

익산시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학습지 지원사업과 반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학습지 지원사업은 학습능력이 부진한 취약계층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전문기관에서 매주 1회 정기 가정 방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반찬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저소득 노인 24명을 상·하반기로 나눠 매주 1회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복지사각지대로 발굴한 대상가구 중 사업내용에 맞는 욕구가 나타난 사람이거나 이웃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선정한다.

2년째 시행하고 있는 두 사업은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정기기부금(CMS)으로 추진하며 향후 만족도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학습지원의 경우 기초학습 부진은 격려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아동들에게는 학습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꾸준히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